

제조업 불모지에서 일자리 창출 성공신화를 보다! - 대구 수성구

지역 현황

대구시 수성구는 대구 동남부에 위치한 인구 46만 명의 자치구로 전체면적의 76.6%에 달하는 녹지지역과 수성유원지, 대구대공원, 범어공원 등 여가공간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대구 제일의 주거지역이다. 또한 법원과 교육청, 경찰청,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병·의원, 금융기관, 방송국 등 도시의 중추기능이 밀집한 행정·교육·의료·금융의 중심지이자 유수의 명문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대구 최고의 교육도시다. 또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구스타디움이 소재하고 주변지역에 시립미술관, 대구박물관, 수성아트피아, 대구대공원 등이 산재해 있다. 이렇듯 세계적인 문화, 레포츠, 관광기반을 갖춘 명품도시인 수성구는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를 성장동력으로 미래로 도약하고 있는 중이다.

‘일자리 1460 프로젝트’ 추진

대구는 고용률이 전국 평균인 58.5%보다 낮은 57.7%, 실업률은 전국 평균 3.0%보다 높은 3.3%에 육박하는 저고용 고실업의 도시로, 최근 10년간 12만 8천여 명에 이르는 지역주민의 타 지역 진출과 함께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수성구는 공장이 없고 제조업체 수가 적은 지역이라 일자리 창출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였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부임하면서 2014년까지 지속가 능하면서 수성구 환경에 적합한 일자리 6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 1460 프로젝트’를 민선5기 1순위 과제로 선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유치 등 기업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일자리 확대, 민간부문 지역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기업형 일자리 확대, 맨해튼 프로젝트 추진, 수성의료지구 내 연구소 및 기업체 유치, 국책·민자사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 들안길 먹거리타운 음식산업 육성과 일자리 연계,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실천체계 확립 및 협업 거버넌스 구축 등 7대 추진전략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수성구는 우선 ‘일자리 1460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전국 자치구 최초로 일자리정책사업단 신설과 수성일자리센터 설치, 창업 전세자금 기금 확보, 일자리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이후 고용의 씨앗인 창업지원 강화 정책으로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인 범어센터를 운영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개 업체를

